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지난 7월 28일 청라의료복합타운 우선협상대상자로 공식 선정돼 인천청라국제도시에 새 병원인 '서울아산병원청라'의 건립을 추진한다.

청라의료복합타운은 청라국제도시에 서울아산병원 부지의 약 2배에 달하는 26만㎡ 규모로 종합병원과 의료바이오 관련 산·학·연, 업무·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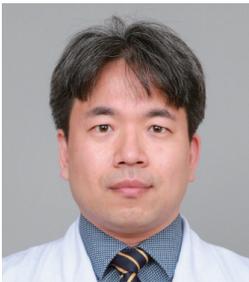
앞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7월 8일 열린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제안서 평가 위원회에서 5개 컨소시엄을 평가한 결과 서울아산병원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서울아산병원은 최대 150일의 협상 기간을 거쳐 올 연말쯤 사업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서울아산병원은 청라의료복합타운 내 건축용지 10만 5,954㎡에 800병상으로 202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안정화 기간을 거쳐 순차적으로 교육, 연구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유방암 3D 수술 가이드 혁신의료기술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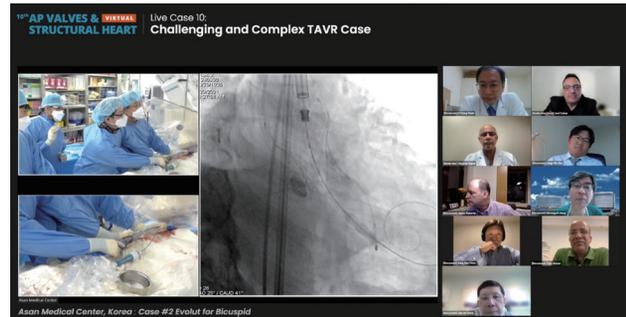
유방외과 고범석 교수, 융합의학과 김남국 부교수팀이 개발한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의 혁신의료기술에 선정됐다. 혁신의료기술은 국가에서 의료 기술의 혁신성과 잠재성을 높게 평가해 조건부로 빠르게 임상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다.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는 환자의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제작된다. 유방의 정상 조직과 암 조직 등의 검사 데이터가 3D 프린터로 전송돼 3D 모형이 만들어진다. 유방 보존술 전 집도위가 3D 모형을 환자의 유방 위에 올려놓고 암의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할 수 있게 해 수술 시 최대한 암세포만 제거할 수 있게 돕는다.

연구팀은 2015년 말 유방암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개발하고 실제로 환자들에게 적용하며 안전성과 유효성을 연구해왔다. 2019년에는 항암 치료를 받은 국소 진행성 유방암 환자에게 3D 프린팅 수술 가이드를 적용한 결과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고 평균 45개월 동안 암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를, 2020년에는 유방 상피내암 환자들에게 적용한 결과 암이 남아있지 않고 모두 정확하게 절제됐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며 효과를 입증했다.

심장판막 및 구조 심질환 중재시술 온라인 국제학술회의



제10회 심장판막 및 구조 심질환 중재시술 국제학술회의(AP VALVES & STRUCTURAL HEART 2021 Virtual)가 지난 8월 5~6일,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심장혈관연구재단이 주최하고 서울아산병원 심장병원이 후원하는 국제 학술교류의 장이다.

독일 본 대학병원 에버하드 그루베 교수, 미국 스탠포드 의대 알랜 영 교수, 덴마크 국립의료원 라스 선더가드 교수, 캐나다 세인트 폴 병원 지안 제임스 예 교수, 프랑스 자크 카르티에 병원 필립 개럿 교수 등 심혈관 및 구조 심질환 분야의 최고 수준의 권위자들이 연자로 나섰고, 50개국 1,210명의 심장 전문가들이 참석해 심장판막 질환과 관련된 고난도 수술 사례를 살피고 최신 지견을 공유했다.

이번 학회에서는 ▲타비시술 대표 사례 ▲타비시술 전후 관상동맥시술 ▲최신 장치를 이용한 좌심방이폐쇄 치료 ▲대동맥판막 수술 및 타비시술 후 판막 재시술 ▲이엽성 대동맥 판막 타비시술 ▲심부전이 동반된 복잡한 승모판 판막시술 ▲복잡한 고난도 타비시술 등에 대한 강의와 라이브 시연이 진행됐다. 📺